

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미래창조과학부 공동 개최

# 월드프렌즈 ICT 해외봉사단 설명회

정부 파견하는 해외봉사활동 프로그램... 한국의 정보화 소개·문화교류 활동 수행

전북대학교가 운영하는 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센터장 이육현)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28일 오후 진수당 강당에서 월드프렌즈 ICT(정보통신기술) 해외봉사단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

월드프렌즈 ICT 해외봉사단은 우리 정부에서 파견하는 해외봉사활동 프로그램 중 하나로 전 세계 개발도상국 20여개 국가의 정부부처, 공공기관, (대)학교 및 NGO로 파견되어 ICT 분야 위주의 활동을 하게

된다.

대개 IT 2명·언어 1명·문화 1명 등 팀 단위로 파견하며 수혜기관에서 요청하는 포토샵, MS오피스, 프로그래밍 언어와 같은 ICT교육,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구축 등의 프로젝트, 한국의 정보화 소개 및 문화교류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파견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IT 전문가가 아니어도 지원 가능한 점, 그리고 중단기 파견 봉사단으로 대학생들에겐 방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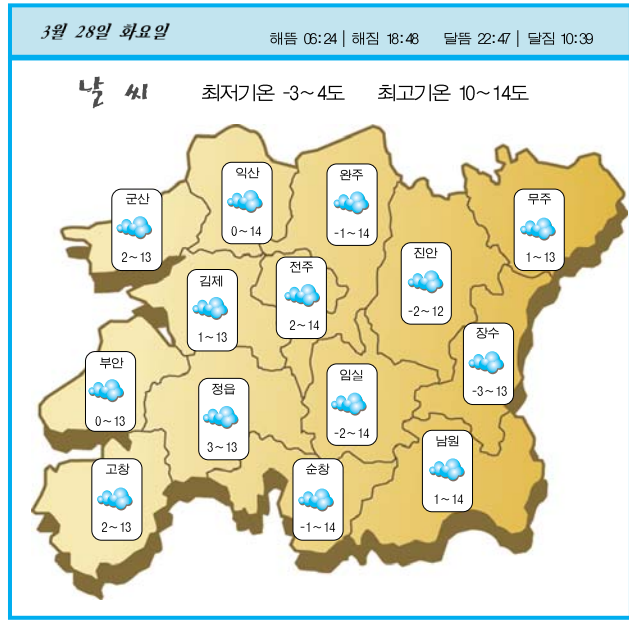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아시아태평양기구 ITU Programme Officer가 월드프렌즈 ICT봉사단과 국제기구(국제전기통신연합) IT협력단에 대한 소개와 모집 설명과 함께 앞서 파견된 단원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질의응답 시간이 진행된다. 설명회 참가를 희망하는 대학생 및 일반인은 센터의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사전 신청이 가능하며 당일 현장접수도 할 수 있다.

한편 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는 전라북도-KOICA-전북대학교 3자간 협력약정 체결을 통해 2016년 1월, 전북대 내에 설립되었다.

연간 23회에 달하는 ODA 사업에 지방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개설된 센터는 각종 ODA사업 및 모집 설명회 ODA이해증진 및 세계시민교육, 사업 참여 자문 등을 실시함으로써 전북지역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해은기자



## 전북대 한스타일 1호 '인문사회관' 개관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완공... 한식기와·전통문양타일 등 한스타일 요소 반영된 건물

가장 한국적인 캠퍼스를 브랜드로 구축하기 위해 심혈을 쏟고 있는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첫 번째 한옥형 건물인 인문사회관의 문을 열었다.

국비 등 189억원이 투입돼 지난 2014년 7월 첫 삽을 뜬 인문사회관은 당초 계획보다 공기를 단축한 2년6개월여의 공사를 모두 마치고 27일 오후 3시 개관식을 갖게 된 것. 이날 개관식에는 이남호 총장과 전임 총장을 비롯 본부 보좌자, 인문사회대학장 및 교직원 등이 참석해 개관을 축하 테이프 커팅과 건물 투어 등이 진행됐다.

연면적 1만3,333㎡에 지상 8층 규모로 지어진 인문사회관은 신규사업 억제라는 정부의 예산 방침에도 불구하고 대학 측의 많은 노력으로 205억원의 국비를 조기 확보했고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사업을 마무리 해 면학 분위기가 훼손되지 않도록 했다.

이곳에는 4실의 강의실과 세미나실 10실, 교수연구실 105실, 학과사무실 14실, 행정실 8실, 사업단 및 연구소 33실, 객원연구실 8실, 교수소통실 3실 등이 들어서 있고 내부 40면과 외부 31면 등 71면의 주차장도 확보돼 있다.

특히 '가장 한국적인 캠퍼스 조



2년6개월여의 공사를 모두 마치고 27일 전북대학교 첫 번째 한옥형 건물인 인문사회관이 개관식을 가졌다.

성'이라는 대학 방향에 걸맞게 전통 한식 기와를 비롯해 전통문양 타일, 한식 문양창, 한식 목재문 옥상 차양지붕, 회랑 등 한스타일 요소가 가장 많이 반영된 건물이다. 건물 곳곳에 편백 등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해 고품격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실내 인테리어를 잘 살렸다

전북대는 인문사회관을 이후 대학에 건립 예정인 한스타일 건물들의 시범사업 기준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이 총장은 "인문사회관 개관은 우리대학 융복합 연구의 새로운 도전과 모험의 출발점이며 우리대학이 세계적 브랜드로 키우고 있는 가장

한국적인 캠퍼스 조성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우리대학이 추진하고 있는 모범생을 넘어선 모범생 양성과 한국적인 캠퍼스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정해은기자

## 도내 고교생, 세월호 특조위원과 토크마당

전북도내 고교생들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과 열린 토크 한마당을 갖는다.

도교육청은 4월 한달을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의 달'로 정하고 4.16세월호 참사 진실과 기억을 주제로 내달 13일 도내 고교생들과 권영빈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소위원장, 일명 세월호 변호사로 알려졌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열린 토크한마당을 갖는다.

이 토론회는 내달 13일 오후 4시 교육청 2층 강당에서 열리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 활동이나 학생들이 알아야 할 세월호 참사의 진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사회가

바뀌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학생들과 열린 토론회가 있을 예정이다.

이번 토크 한마당에 참여하기 희망하는 학생들은 학교를 통해 이번 달 2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세월호참사 희생자를 추념하는 전화 연결음을 제작하여 교육행정기관 및 일선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전화 연결음은 남녀용으로 제작됐으며 세월호 참사를 기억해 주세요, 전북교육청은 희생당한 학생과 선생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다시 떠오릅니다. 4.16 세월호참사 희생자를 애도합니다'라는 음성이 녹음됐다.

/정해은기자

## 도교육청, 사회복지시설 교육정보화 방문상담 실시

전북도교육청은 매년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인터넷 사용료를 무상 지원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매년 학생들의 사회복지시설 퇴소, 타시도 전출, 졸업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학교를 통해 신청을 했으나 올해 처음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해 학생용 컴퓨터 현황을 파악하고 부족한 회선을 증설하는 등 인터넷 사용료 지원을 위한 현장 방문 상담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회선 수 증설 및 방문을 원하는 시설에 대하여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총 8개 시설을 현장 방문하여 학생용 컴퓨터 현황 파악을 통하여 적정회선 수를 파악하고

행정업무 등 상담이 이뤄졌다.

이를 통해 총 17개 시설에 97회선을 지원해 지난해에 비해 8회선을 증설했다.

또한 전북교육청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예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하고자 정보화역기능 예방 프로그램을 배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터넷 지원은 앞으로 도교육청이 직접 행정처리 등을 진행해 학생 노출 방지 및 행정업무 경감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해은기자

